

## 독립매체가 사는 법

# “독자는 좋은 기사를 외면하지 않는다”

박상규／진실탐사그룹 ‘셜록’ 대표 기자

검지에 살짝 힘주는 일이, 그 찰나의 순간이 이렇게 어려울 줄이야. 마우스를 쥔 오른손은 좀처럼 움직이지 않았다. 대신 입에선 한숨이 여러 번 터져 나왔다. ‘발송’ 버튼을 쉽게 누르지 못하니, 사직서의 종착지인 사장님 메일함이 저 멀리 남태평양의 섬처럼 느껴졌다.

‘딸깍.’

그 미세한 마우스 터치음이 천동처럼 가슴을 쳤다. 사직서는 빛의 속도로 날아가 사장님 품에 안겼다. 그렇게 돌아올 수 없는 다리를 건넜다. 오마이뉴스 직업기자 10년 세월이 끝났다.

### 스스로 불사를 다리

이 바닥을 완전히 뜯 생각은 아니었다. 프리랜서로 탐사보도를 하고 싶었다. 내가 원하는 취재 아이템을 깊이 취재하려는 목적이었다. 구체적인 계획은 없었지만, 가슴속엔 무모한 꿈이 무럭무럭 자라갔다. ‘좋은 기사는 통한다. 독자는 좋은 기사를 외면하지 않는다.’

믿거나 말거나, 이 생각 하나 부여잡고 사표를 냈다. 오연호 오마이뉴스 대표에게서 곧바로 연락이 왔다. 밥 한번 먹자고 했다. 마주 앉은 점심식사

자리, 오 대표가 거부할 수 없는 제안을 했다. “사표를 내도 계속 월급 줄게. 4대보험도 모두 적용해서. 너 편한 대로 기사만 쓰면 돼.”

사표를 냈는데도 월급을 주겠다는, 이토록 달콤한 제안이 있나. 바로 꼬리를 내리고 일주일 동안 생각해보겠다고 했다. 정말이지 일주일간 꿈속에서 살았다. 다시 오 대표와 마주 앉은 자리. 내가 먼저 말했다.

“월급 안 받을립니다. 그냥 제가 알아서 먹고살게요.” 오 대표는 고개를 끄덕였다. 언제든 힘들면 다시 돌아오라고 말했다. 이번엔 내가 무모한 말을 했다.

“저는 오마이뉴스에 다시 입사하지 않는 게 꿈입니다.”

다니던 직장이 싫어서가 아니다. 돌아갈 다리가 건재하고, 언제든 받아줄 곳이 있다면 앞으로 전진하지 못할 것 같았다. 어느 정치인의 말처럼 돌아갈 다리를 스스로 불살라야만 했다. 그땐 그렇게 비장했다. 2015년 1월 초의 일이다.

내 인생에서 가장 잘한 선택, 오마이뉴스에 사표를 낸 것이다. 오마이뉴스가 싫거나 비난하려는 건 아니다. 다만 기자로서 눈에 보이지 않는 걸 쓰고 싶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걸 보려면 많은 시간과

“  
2014년 언론사에 사표를 냈고,  
2015년 월급이라는  
달콤한 제안을 거부했다.  
2016년 10억 원을 펀딩했고,  
2017년 쫄딱 망해  
아침마다 자살을 생각했다.  
그리고 2018년 가을,  
양진호 사건을 터트렸다.  
”

않는다’는 것이 입증돼서 기뻤다. 많은 후배 기자들로부터 연락이 왔다. 그들의 말은 비슷했다. “저도 선배처럼 장기 탐사보도를 하고 싶습니다.” 총펀딩금액에서 내게 떨어진 돈은 약 1억 5,000만 원. 이걸 밑천 삼아 2017년 1월 진실탐사그룹 ‘셜록’을 만들었다. 뜻있는 기자들을 규합해 시간과 돈을 보장하면 좋은 기사가 나올 거라 생각했다. 혼자 10억 원을 펀딩했으니, 3명이면 30억, 10명이면 100억 원을 펀딩 받을 거라 생각했다.

### 산나물 뜯어 취재비 마련

내가 순진했다. 돈은 꾸준히, 순식간에 없어졌고 기사는 생각만큼 세상을 흔들지 못했다. 정확히 9개월 만에 ‘쪽박’을 찾았다. 2017년 9월부터 돈을 빌리러 다녔다. 직원들 월급을 줘야 했고, 나도 먹고살아야 했다.

적금, 보험 등 깔 수 있는 모든 걸 깼다. 현금서비스는 물론이고, 카드론까지 받았다. 믿거나 말거나 대부업체를 제외하고 내가 아는 거의 모든 사람에게 돈을 빌렸다. 자존감은 추락했고, 우울증이 왔다. 아침마다 죽음을 생각할 즈음, 한 언론사 간부가 찾아왔다. 그가 다시 거부하기 어려운 제안을 했다. “우리 매체와 합칠시다. 모두 고용 승계하고, 셜록 이름은 물론이고 모든 활동을 보장하겠습니다. 지금처럼 탐사보도만 계속하시면 됩니다.”

더없이 달콤한 유혹. 다시 일주일을 고민했다. 그리고 거부했다. 죽고 싶어 환장해서가 아니다. 어쨌든 큰 꿈을 안고 시작한 셜록 아닌가. 망하고 망해, 끝내 빙털터리가 될 때까지 벼텨보자고 생각했다. 그때도 다시 오래된 꿈을 생각했다. ‘좋은 기사는 통한다. 독자는 좋은 기사를 외면하지 않는다.’

인수합병 제안을 거부한 나는 살인범에게 전화를 했다. 삼례 나라슈퍼 3인조 강도치사사건의 진범 중 한 명인 이 모 씨에게 말이다. 그와는 ‘좋은 인연, 나쁜 인연’ 모두 있다.

